

研究論文

#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오강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조교수, 고고학 전공  
okw@aks.ac.kr

- I. 머리말
- II. 『삼국지』 배송지 주의 보주 방식과 사료 가치
- III.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의 복원과 전거
- IV. 맺음말

## I. 머리말

『위략』은 『사기』와 『한서』 다음으로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체계를 갖추고 다량 서술되어 있는 사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조선전」은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및 위만조선의 멸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위략』은 『사기』 등에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 빠져 있는 위만 이전의 고조선사 및 위만이 자신의 정권을 세우기까지의 세부적인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고조선을 연구하는 데에 구체적인 역사적 해석 문제를 떠나 『사기』·『한서』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위략』의 관계 기사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쟁이 있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연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하여 2,000여 리를 빼앗았다(“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는 기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조선 중심지 문제와 맞물려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왔는데,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sup>1)</sup>, 보다 영향력 있는 것은 2,000여 리가 실상은 고조선 공격 전 동호를 물리치고 빼앗은 1,000여 리가 어환 등의 착각으로 고조선으로부터 빼앗은 1,000여 리와 합산되었다든지<sup>2)</sup>, 1,000여 리를 오기한 것이거나 ‘많은 땅’을 의미하는 개수(概數)<sup>3)</sup>이거나 부정확한 이문(異聞)을 수록한 것으로<sup>4)</sup> 보는 견해들이다.

『위략』은 위의 “취지이천여리(取地二千餘里)” 기사뿐만 아니라 고조선

- 
- 1) 리지린, 『고조선 연구』(과학원출판사, 1963), 22쪽; 리상호, 「고조선 중심을 평양으로 보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하)」, 『역사과학』 3(1963), 60쪽; 張博泉, 『東北地方史稿』(吉林大學出版社, 1985), 45쪽; 千寬宇, 「古朝鮮의 몇 가지 問題」, 『韓國上古史의 諸問題』(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132쪽; 李鍾旭, 『古朝鮮史研究』(一潮閣, 1993), 166쪽; 張碧波, 「古朝鮮研究中的誤區-東北史評之一」, 『黑龍江民族叢刊』 1999年 4期(1999), 45쪽; 程妮娜 主編, 『東北史』(吉林大學出版社, 2001), 17쪽; 李德山·樊凡,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116쪽.
  - 2)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83)(重版), 70쪽;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서울大 國史學科, 1990), 47쪽; 李健才, 「公元前3-公元前2世紀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98年 5期(1998), 195쪽;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1999), 110쪽; 박대재,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3(2006), 25쪽.
  - 3) 尹乃鎰, 『韓國古代史新論』(一志社, 1986), 62쪽.
  - 4) 金正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10, 34쪽.

관계 기사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략』의 일문(逸文)을 인용하고 있는 『삼국지』의 배송지(372-451) 주 자체도 정사로서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유래가 깊어 당나라 때의 유지기(劉知幾, 661-721)는 『삼국지』 배송지 주를 사료를 간정(刑定)하지 않고 늘어놓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든지<sup>5)</sup>, 『위략』을 이문을 가리지 않고 수록하였다든지<sup>6)</sup>, 남조 양(梁)나라 유협(劉勰, 466-520)이 『위략』을 요체가 없는 사서로 혹평한 것을<sup>7)</sup>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적 시각은 『위략』을 인용한 『삼국지』 배송지 주 또한 마찬가지여서 전통시대 『위략』과 『삼국지』에 대한 비판은 늘 함께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전통시대의 비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료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당시까지의 일반적인 보수 원칙을 벗어나 있다든지, 문체가 엄격하고 절제되어 있지 않다든지, 보주에서 본문보다 많은 양의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든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위략』 고조선 관계 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사료 출처와 맥락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포괄적인 비판만이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위략』을 인용한 『삼국지』 배송지 주의 보수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전통시대의 『삼국지』 배송지 주에 대한 비판이 어떠한 맥락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본 후, 배송지 주가 과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진행한 뒤에는 사료 비교를 통해 『위략』 고조선 관계 기사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에 이어 『위략』 고조선 관계 기사의 사료 기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통해 각 조목의 구체적인 역사적 해석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사료 자체의 신뢰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혀보기로 하겠다.

5) 劉知幾, 『史通』卷5, 「內篇」, 〈補註〉第17. “少期集注國志, 以廣承作所遺, 而喜聚異同, 不加刑定, 恣其擊難, 坐長煩芜.”

6) 劉知幾, 『史通』卷5, 「載文」第16. “魏時京兆魚豢私撰魏略, 事止明帝. [...] 異聞錯出, 其流最多.”

7) 劉勰, 『文心雕龍』, 「史傳」第16. “及魏代三雄, 紀傳互出, 陽秋魏略之屬, 江表吳錄之類, 或激抗難徵, 或疎闊寡要.”

## II. 『삼국지』 배송지 주의 보주 방식과 사료 가치

여기에서는 배송지 주의 특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위략』의 고조선 관련 기사가 배송지 주에 의해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송지는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2년 하동군(河東郡) 문희현(聞喜縣)의 명문 세가인 배규(裴珪)의 장자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학문에 매진하여 박람분적(博覽墳籍)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 때문에 비록 산직이기는 하나 약관의 나이에 전중장군(殿中將軍)에 제수되었고, 곧이어 실직으로 회계군(會稽郡)의 사유(謝輜)로부터 시작하여 동진 말년에 고창현령(故彰縣令)·상서사부랑(尚書祠部郎) 등을 지냈으며, 남조 송(宋)이 건국된 이후에는 연이어 무제(武帝)와 문제(文帝)의 신임을 받아 영릉내사(零陵內史)·국자박사(國子博士)·중서시랑(中書侍郎)·영가태수(永嘉太守)·태중대부(太中大夫) 등을 지냈다.<sup>8)</sup>

배송지가 『삼국지』에 주를 달게 된 것은 그가 57세 되던 해인 원가(元嘉) 6년(429년) 남조 송 문제(宋文帝)가 진수(陳壽, 233-297)의 『삼국지』에 주를 달아 보강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다.<sup>9)</sup> 문제가 이러한 명을 특별히 내린 까닭은 『삼국지』가 위진 이전의 전통적인 사서(史書) 기술 방식, 즉 연혁과 사건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원문만으로는 사건의 전말과 자세한 내역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송지는 진수가 참고하지 않은 자료들까지 모두 섭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고자 애썼고<sup>10)</sup>, 그 결과 전해지게 된 것이 바로 ‘배송지 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배송지 주는 중국 사학사에서 큰 획기를 이루게 되었는데<sup>11)</sup>, 그 이유는 배송지 이전의 주석가들은 경사류에 주를 달 때 단순히 원문에 대한 훈고와 교감에만 치중한 반면, 배송지부터는 그보다는 원문에 전하지 않는 사실을 많은 자료에 기초하여 보충하는 ‘보궐(補闕)’, 원문의 의심스럽거나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8) 李延壽, 『南史』卷33, 「列傳」第23, 〈裴松之傳〉參照.

9) 李延壽, 『南史』卷33, 「列傳」第23, 〈裴松之傳〉. “上使注陳壽三國志, 松之鳩集傳記, 增廣異聞, 既成奏之. 上覽之曰, 裴世期爲不朽矣.”

10) 趙翼(清), 『廿二史札記』卷6, 「裴松之三國志註」. “宋文帝命裴松之, 采三國異同, 以註陳壽三國志, 松之鳩集傳記, 增廣異聞, 書成奏進. 帝覽而善之曰, 此可謂不朽矣.”

11) 宮岸雄介, 「裴松之史學觀」,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42(1996), 62-63쪽.

‘변의(辨疑)’ 성격의 자료 제시 등을 주의 범위에 포괄시키게 되었다.<sup>12)</sup> 이렇게 하다 보니 현재는 대부분이 실전된, 『삼국지』에서는 참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소개되었고<sup>13)</sup>, 이러한 점 때문에 『삼국지연의』의 주요한 자료 원천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점에서 배송지 주는 지금은 전하지 않는 배송지 당대와 그 이전 시기 희귀 자료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배송지 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흔치는 않지만, 원매(袁枚, 1716-1798)·장사전(蔣士銓, 1727-1814)과 함께 ‘건륭삼대가(乾隆三大家)’로도 불리우는 조익(趙翼, 1727-1814)은 자신의 『이십이사찰기(廿二史札記)』에서 배송지가 열람한 자료 가운데 1/10-2/10가량만이 우연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하였다.<sup>15)</sup> 배송지가 실제로 참고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240-270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sup>16)</sup>, 이 가운데 대부분이 현전하지 않는다.

참고로 배송지 주에 인용된 서목을,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관련 연구 가운데 오야춘(伍野春)과 고민(高敏)이 고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 인용 서목을 필자 나름대로 재분류하여 간단하게 예시해보면 표1과 같다.

- 
- 12) 趙翼(清), 『廿二史札記』卷6, 「裴松之三國志註」. “其表云, 壽書銓鈔可觀然, 失在于略, 時有所脫漏, 臣奉旨, 尋詳務在周悉其, 壽所不載而事宜存錄者, 罔不畢取. 或同說一事而辭有乖雜, 或出事本異疑不能判者, 並皆鈔內, 以備異聞. 此松之作注大旨, 在于搜輯之博, 以補壽之闕也. 其有訛謬乖違者, 則出己意辨正, 以附于註內.”
- 13) 裴媛媛, 「陳壽《三國志》與裴松之注的文史分類」, 『綏化學院學報』30卷 2期(2010. 4), 82-83쪽.
- 14) 傅惠生, 「論裴松之《三國志注》與《三國演義》的關係」,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年 3期(1994); 徐宗文, 「論《三國演義》與《三國志》裴注之關係」,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3年 3期(2003), 87-88쪽; 沈伯俊, 「《三國志》與《三國演義》關係三論」, 『福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3年 3期(2003), 75쪽.
- 15) 趙翼(清), 『二十史札記』卷6, 「裴松之三國志註」. “……凡此所引書, 皆註出書名可見, 其採輯之博矣. 范蔚宗作後漢書時, 想松之所引各書, 尙俱在世, 故有補壽志所不載者. 今各書間有流傳, 已不及十之一, 壽及松之蔚宗等, 當時已皆閱過, 其不取者, 必自有說. 今轉欲據此, 偶然流傳之一二本, 以駁壽等之書, 多見其不知量也.”
- 16) 虞萬里, 「《三國志》裴注引書新考」, 『溫州師範學院學報』1994年 4期(1994); 伍野春, 『裴松之評傳』(南京大學出版社, 1998), 238-241쪽; 吳金華, 『三國志叢考』(上海古籍出版社, 2000), 277-279쪽; 伍野春, 「裴松之《三國志注》引書辨析」, 『東方論壇』2005年 2期(2005); 高敏, 「《三國志》裴松之注引書考」,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25卷 3期(2007. 6).

표1-배송지의 『삼국지』 주 인용 서목

史書類	戰國策, 史記(司馬遷), 漢書(班固), 漢書注(服虔), 漢書注(如淳), 後漢書(謝承), 後漢書(華嶠), 續漢書(司馬彪), 漢紀(張璠), 漢紀(袁宏), 獻帝春秋(袁曄), 漢魏春秋(孔衍), 魏氏春秋(孫盛), 漢晉春秋(習鑿齒), 魏書(王沈), 魏紀(陰澹), 蜀本紀(譙周), 蜀記(王隱), 吳書(韋昭), 吳錄(張勃), 吳紀(環濟), 吳歷(胡冲), 晉書(王隱), 晉書, 晉書(虞預), 晉紀(干寶), 晉陽秋(孫盛), 三國評(徐衆), 獻帝傳, 漢獻帝起居注, 漢獻靈二帝紀(劉艾), 晉泰始起居注(李軌), 晉惠帝起居注(陸機), 九州春秋(司馬彪), 典略(魚豢), 魏略(魚豢), 戰略(司馬彪), 帝王世紀(皇甫謐), 山陽公載記(樂資),
故事類	漢末英雄記(王粲), 魏武故事, 魏末傳, 魏晉世語(郭頒), 舊史, 異同雜語(孫盛), 異同評(孫盛), 益部耆舊雜記, 神仙傳(葛洪), 列異傳(曹丕), 搜神記(干寶), 風俗通(應劭), 異林(陸氏)
經典類 (子部類)	詩, 詩注(鄭玄), 周禮, 禮記, 禮記注(鄭玄), 禮論(何承天), 易, 尚書, 今文尚書, 尚書注(鄭玄), 尚書注(馬融), 春秋傳, 左傳, 左傳注(服虔), 公羊傳, 公羊傳注(何休), 國語, 國語注(韋昭), 論語, 論語集解(何晏), 孟子, 莊子, 管子, 呂氏春秋, 淮南子, 抱朴子(葛洪), 方言(揚雄), 方言注(郭璞), 傅子(傅玄), 魯連子, 明堂論(蔡邕), 郊丘議(蔣濟), 三蒼, 新序(劉向), 杜氏新書(杜夷), 說苑(劉向), 新論(桓譚), 典論(曹丕), 四禮書勢序(衛恒), 志林(虞喜), 字林(呂沈), 辨亡論(陸機), 辯道論(曹植), 通語(殷基), 啓蒙注(顧愷之), 杜賁子羽(張敏)
方志類	九州記(荀綽), 交廣二州春秋(王範), 華陽國志(常璩), 交廣記(王隱), 會稽典錄, 襄陽記
天文類	瑞應圖, 相書
地理類	河圖括地象, 太康三年地記, 神異經(東方朔), 異物志(楊孚), 越絕書, 西域舊圖
傳類	曹操家傳, 管輅別傳(管辰), 江表傳(虞溥), 平原禰衡傳, 鄭玄傳, 樂廣傳(謝鯤), 曹瞞傳, 顧譚傳(陸機), 嵇康傳(嵇喜), 王弼傳(何劭), 荀彧傳(何劭), 辛惠英傳(夏侯湛), 郭林宗傳, 鍾會母傳(鍾會), 鄭玄別傳, 吳質別傳, 劉廙別傳, 任嘏別傳, 費禕別傳, 潘岳別傳, 潘尼別傳, 盧諶別傳, 嵇康別傳, 荀勗別傳, 荀彧別傳, 邴原別傳, 程曉別傳, 濟北王志別傳, 孫惠別傳, 陸機陸雲別傳, 趙雲別傳, 虞翻別傳, 華佗別傳, 孫資別傳, 諸葛恪別傳, 王朗家傳, 荀氏家傳, 廬江何氏家傳, 會稽邵氏家傳, 益部耆舊傳(陳壽), 陳留耆舊傳(蘇林), 漢末名士錄, 楚國先賢傳(張方), 汝南先賢傳(周斐), 零陵先賢傳, 高士傳(皇甫謐), 文士傳(張隲), 逸士傳(皇甫謐), 烈女傳(皇甫謐), 田丘儉志記, 先賢行狀, 山濤行狀
文集類	高貴鄉公集(曹髦), 孔融集(孔融), 田丘儉集(田丘儉), 繆襲集(繆襲), 潘岳集(潘岳), 傅咸集(傅咸), 孫綽集(孫綽), 王朗集(王朗), 王粲集(王粲), 王褒集(王褒), 王彪之集(王彪之), 姚信集(姚信), 庾闡集(庾闡), 劉寔集(劉寔), 陸機集(陸機), 應璩集(應璩), 張超集(張超), 曹公集(曹操), 曹植集(曹植), 左思集(左思), 諸葛亮集(諸葛亮), 嵇康集(嵇康)
譜謀類	譜敘(華嶠), 魏世譜(孫盛), 蜀世譜(孫盛), 孔氏譜, 郭氏譜, 孫氏譜, 阮氏譜, 王氏譜(琅邪), 王氏譜(太原), 劉氏譜, 庾氏譜, 諸葛氏譜, 陳氏譜, 崔氏譜, 胡氏譜, 嵇氏譜, 裴氏家記(傅暢), 袁氏世紀(袁準), 陸氏世頌
總書類	博物志(張華), 萬機論(蔣濟), 書林(應璩), 語林(裴啟), 啓事(山濤), 文章志(擘虞), 文章敘錄(荀勗), 魏名臣奏(陳壽), 魏臺訪雜議(高堂隆)
音韻書類	漢書音義(應劭), 漢書音義(蘇林)
道具書類	百官志, 百官名, 漢官儀(應劭), 晉百官表, 晉武帝百官名, 咸熙元年百官名
其他類	七略(劉向), 孫子兵法, 太始八年詔, 晉武帝太始元年詔, 漢季輔臣贊(楊戲), 晉諸公贊(傅暢), 三輔決錄(趙歧), 三輔決錄注(擘虞), 決疑要注(擘虞), 褒賞令, 荀彧碑文(潘勗), 武帝誅(曹植), 文帝誅(曹植), 陸遜銘(陸機), 魯芝銘(夏侯湛), 馬鈞序(傅玄), 胡冲答問, 陸氏祠堂像贊, 中經簿(司馬炎), 默記(張儼), 家戒(杜恕), 家戒(王昶), 家誡(李秉)

표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배송지 주는 그야말로 ‘박채군서(博採群書)’하여 『삼국지』에서 빠진 사실과 후인들이 이해하기에 모호한 사건·사물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지 주는 후대에 자료를 간정하지 않고 늘어놓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든지, 진수도 참고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은 것을 끌어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든지<sup>17)</sup>, 『삼국지』는 문체가 고준(高俊)하고 간략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다 드러난<sup>18)</sup> 반면 배송지 주는 문체는 물론 호사가들이나 좋아할 내용까지 끼어들어가 있는 등 번잡하여<sup>19)</sup> 진수만 못하다는 혹평을 받아왔다.

그러면 배송지 주가 『삼국지』의 원저자인 진수와 대비되어 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배송지가 워낙 ‘박채군서’하여 진수의 『삼국지』 원문보다 보주가 수배에 달할 정도로 많아 눈에 거슬리는 까닭도 있었지만<sup>20)</sup>, 그보다는 위의 유지기와 왕통(王通, 584-617) 등의 지적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주석가의 보주 원칙인 교감과 훈고에서 벗어나<sup>21)</sup> 원작자의 사료 취득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여러 자료를 집성한 데다, 집성 자료 가운데 전통적인 정사류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다 보니 문체 또한 은근하고 간결한 것을 벗어나 잡다하게까지 보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배송지는 진수와는 달리 정사류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신이’한 사건·사물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를 인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국지』 「위서」 〈제왕기(齊王紀)〉의 ‘화완포(火浣布)’

17) 馬端臨, 『文獻通考』 卷191, 「經籍考」 第18, 〈三國志六十五卷〉. “葉氏曰, [...] 近世有謂三國志當更修完者, 蓋見注所載, 尙有諸書, 不知壽盡取而爲書矣. 注之所載皆壽書之奔餘也.”

18) 馬端臨, 『文獻通考』 卷191, 「經籍考」 第18, 〈三國志六十五卷〉. “王通數稱, 壽書細觀之, 實高簡有法.”

19) 永瑤等,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5, 「史部」 1, 〈正史類〉 1, ‘三國志六十五卷 內府刊本’. “宋元嘉中, 裴松之受詔爲注, 所注雜引諸書, 亦時下己意, 綜其大致, 若有六端, [...] 一曰, 傳所無之人, 附以同類其中, 往往嗜奇愛博, 頗傷蕪雜…….”

20) 馬端臨, 『文獻通考』 卷191, 「經籍考」 第18, 〈三國志六十五卷〉. “晁氏曰, 晉陳壽撰魏四紀二十六列傳, 蜀十五列傳, 吳二十列傳. 宋文帝嫌其略, 命裴松之補注. 博採群說, 分入書中, 其多寡, 本書數倍.”

21) 배송지 이전의 전통적인 작주로는 선진시대의 『춘추좌전』·『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 한나라 때의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의 『상서주』, 가규(賈逵)와 두예(杜預)의 『춘추좌전주』, 서광(徐廣)의 『사기주』, 복건(服虔)과 응소(應劭)와 위소(韋昭)의 『한서주』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주는 원문에 대한 음의(音義)·명물(名物)·지리(地理)·진고(典故)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崔磊·雷家宏, 「『三國志』裴松之注의 史學價值」, 『襄樊學院學報』 32卷 3期(2011. 3), 11쪽.

에 대해 배송지가 『이물지(異物志)』·『수신기(搜神記)』·『신이경(神異經)』을 인용하여 산출지·제작 재료·명칭 유래·특성·화완포 관련 구체적인 역사 사건·연혁 등을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주한 것을 들 수 있다.<sup>22)</sup>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진수를 비롯한 역대 정사 편찬자와 주석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서, 후대 유학자들이 보기에 정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다분하다.<sup>23)</sup>

게다가 배송지가 주를 단 진수 때까지는, 반고(班固, 31-92)의 『한서』부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sup>24)</sup>와는 달리 엄격하고 정확하며 박실한 사실 기록의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 문학적인 서술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전통적인 사서 집필 원칙과 문체가 유지되고 있던 때이다. 또한 진수 자신도 어릴 때 경학과 전통 사서 집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던 초주(譙周, 199년 이전-270)<sup>25)</sup>로부터 『상서』·『공양전』·『곡량전』·『좌전』 등의 경서와 『사기』·『한서』 등의 사서를 직접 사사받았고, 사회에 진출한 뒤로는 촉한(蜀漢)의 동관비서랑(東觀秘書郎)으로부터 진(晉)나라의 좌저작랑(佐著作郎)·저작랑(著作郎) 등 주로 사

22) 陳壽, 『三國志』卷4, 『魏書』4, 〈齊王紀〉의 ‘火浣布’에 대한 裴松之 注. “異物志曰, 斯調國有火州, 在南海中. 其上有野火, 春夏自生, 秋冬自死. 有木生於其中而不消也. 枝皮更活, 秋冬火死則皆枯瘁. 其俗常冬采其皮以爲布, 色小青黑. 若塵垢汚之, 更投火中, 則更鮮明也. 傅子曰, 漢桓帝時, 大將軍梁冀以火浣布爲單衣, 常大會賓客, 冀陽爭酒, 失杯而汚之, 僞怒, 解衣曰, 燒之, 布得火, 煒曄赫然, 如燒凡布, 垢盡火滅, 粲然潔白, 若用灰水焉. 搜神記曰, 昆侖之墟, 有炎火之山, 山上有鳥獸草木, 皆生於炎火之中, 故有火浣布, 非此山草木之皮稜, 則其鳥獸之毛也. 漢世西域舊獻此布, 中間久絕, 至魏初, 時人疑其無有. 文帝以爲火性酷烈, 無含生之氣, 着之典論, 明其不然之事, 絕智者之聽. 及明帝立, 詔三公曰, 先帝昔着典論, 不朽之格言, 其刊石於廟門之外及太學, 與石經并, 以永示來世. 至是西域使至而獻火浣布焉, 於是刊滅此論, 而天下笑之. 臣松之昔從征西至洛陽, 歷觀舊物, 見典論石在太學者尚存, 而廟門外無之, 問諸長老, 云晉初受禪, 即用魏廟, 移此石於太學, 非兩處立也. 竊謂此言爲不然. 又東方朔神異經曰, 南荒之外有火山, 長三十里, 廣五十里, 其中皆生不燼之木, 晝夜火燒, 得暴風不猛, 猛雨不滅. 火中有鼠, 重百斤, 毛長二尺餘, 細如絲, 可以作布. 常居火中, 色洞赤, 時時出外而色白, 以水逐而沃之即死, 續其毛, 織以爲布.”

23) 裴媛媛, 앞의 논문, 83쪽.

24) 사마천의 엄격하고 간결한 수사 원칙에 대해서는 동한의 반표(班彪, 3-54)가 그를 ‘양사지재(良史之才)’로 극찬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范曄, 『後漢書』卷40上, 『班彪列傳』第30上, 〈班彪傳〉. “辨而不華, 質而不野, 文質相稱, 蓋良史之才也.”

25) 초주는 심지어 사마천 또한 『사기』에서 주진(周秦) 이상의 시대 역사 서술에서 정통 자료가 아닌 세간에 전승되는 말과 백가(百家)의 말을 채용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원칙론자였다. 房玄齡, 『晉書』卷28, 〈列傳〉第52, 〈司馬彪傳〉. “譙周以司馬遷史記書周秦以上, 或採俗語, 百家之言, 不典據正經. 周於是, 作古史考二十五篇, 皆憑舊典, 以糾遷之謬誤.”

관직에 종사하였다.<sup>26)</sup>

이러한 까닭에 진수는 『삼국지』를 자신이 스승인 초주에게서 배운 대로 정경(正經)·정사(正史)와 선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간결하게 서술하고자 애썼고, 너무 전통적인 수사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당대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질박하게 서술하였다는<sup>27)</sup>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배송지가 주로 활동하던 남북조시대에는 이러한 기풍이 크게 전변하여 경사적 전통이 문사적 전통으로 바뀌게 되었고<sup>28)</sup>, 그에 따라 역사 서술이 화려한 수식어는 물론 문학적 서정성까지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배송지에게 『삼국지주(三國志注)』를 편찬케 한 남조 송나라 제왕<sup>29)</sup>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서 배송지 주가 역사 서술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 자신도 역사를 일반 문학적 서술과는 철저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그의 주문(注文) 전반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그가 『삼국지』 「위서」 〈무제기(武帝紀)〉의 주에서 해당 기사를 검토하면서 역사를 기술할 때 약간의 문체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실제 발생했던 객관적인 사실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든지<sup>30)</sup>, 곽반(郭頒)의 『위씨세어(魏氏世語)』를 세간의 낭설이 아무런 사료 비판 없이 기재되어 있다며 믿을 수 없다고<sup>31)</sup> 평가한 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사실 전근대 일부 연구자들이 배송지 주가 ‘이문’과 ‘기괴’한 것을 가리지 않고 선호했다고 비평한<sup>32)</sup> 것과는 달리, 배송지 주에서 이와

26) 房玄齡, 『晉書』 卷28, 〈列傳〉 第52, 〈陳壽傳〉 參照.

27) 房玄齡, 『晉書』 卷28, 〈列傳〉 第52, 〈陳壽傳〉. “梁州大中正尚書郎范頽等上表曰, [···] 陳壽作三國志, 辭多勸誡, 明乎得失, 有益風化, 雖文艷不若相如而質直過之…….”

28) 李延壽, 『南史』 卷59, 「列傳」 第49, 〈王僧孺傳〉. “論曰, 二漢求士率先經術, 近代取人多由文史…….”

29) 杜佑, 『通典』 卷16, 「選舉」 4, 〈雜議論〉 上. “宋明帝聰博好文史, [···] 於是, 天下向風, 人自藻飾, 雕蟲之禮, 盛於時矣.”

30) 陳壽, 『三國志』 卷1, 「魏書」 1, 〈武帝紀〉 第1, ‘五年春正月’ 기사에 대한 裴松之 注. “臣松之以爲史之記言, 旣多潤色. 故前載所述有非實者矣, 後之作者又生意改之, 于失實也, 不亦彌遠乎.”

31) 陳壽, 『三國志』 卷4, 「魏書」 4, 〈高貴鄉公紀〉의 ‘二年春正月’ 기사에 대한 裴松之 注. “瑒撰後漢紀, 雖似未成, 辭藻可觀. 溥著江表傳, 亦粗有條貫. 惟頽撰魏氏世語, 塞乏全無宮商, 最爲鄙劣, 以時有異事, 故頗行於世, 干寶, 孫盛等多采其言以爲晉書, 其中虛錯, 如此者, 往往而有之.”

관련된 자료들이 인용된 것은 『신이경(神異經)』(1회)·『이물지(異物志)』(1회)·『열이전(列異傳)』(2회)·『육씨이림(陸氏異林)』(1회)·『박물지(博物志)』(5회)·『수신기(搜神記)』(9회)·『신선전(神仙傳)』(3회) 해서 7책에 22회에 지나지 않는다.<sup>33)</sup> 아울러 그 또한 당시 세간에 유행하고 있던 신선고사류를 무근거한 미혹된 것으로 선을 분명히 긋고 있기도 하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게 된 까닭은 앞서 언급한 당시까지의 일반적인 주석 원칙을 처음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어디까지나 경학과 사학을 동일시하던 고증세시대의 시각일 뿐 학문의 환경이 달라진 근현대에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청나라의 대표적인 고증학자인 전대흔(錢大昕, 1728-1804)이 자신의 『삼국지변의(三國志辨疑)』 「자서(自序)」에서 사서에 주를 다는 것과 경서에 주를 다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사서에 주를 달 때에는 사실이 불명확할 경우 아무리 ‘훈고’를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송지 주가 사학사에서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한 것과<sup>35)</sup> 배송지 자신이 보주할 때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었다고 자술한 것에<sup>36)</sup>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송지 주는 그저 여러 자료를 기계적으로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자료의 면밀한 상호 대조와 비교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소략한 기사를 보충하는 식으로 작주되어 있다. 진수가 『삼국지』 「오서」 〈주연전(朱然傳)〉에서 오나라가 적오(赤烏)

32) 劉知幾 著·浦起龍 注, 『史通通釋』 卷5, 「內篇」, 〈補注〉第17. “次有好事之子, 思廣異聞, 而才短力微, 不能自達, 庶凭驥尾, 千里絕群, 遂乃撮衆史之異辭, 補前書之所闕, 若裴松之三國志……”; 永瑤 等, 『四庫全書總目提要』 卷45, 「史部」 1, 〈正史類〉 1, ‘三國志六十五卷 內府刊本’. “傳所無之人, 附以同類其中, 往往嗜奇愛博, 頗傷蕪雜…….”

33) 張智強·趙天一, 「試論《三國志》裴松之注“鑿空語怪”的文學意義」, 『西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7卷 1期(2009. 2), 144쪽.

34) 陳壽, 『三國志』 卷64, 「吳書」 19, 〈趙達傳〉의 裴松之 注. “臣松之以爲葛洪所記, 近爲惑衆, 其書文頗行世, 故撮取數事, 載之篇末也. 神仙之術, 詎可測量, 臣之臆斷, 以爲惑衆, 所謂夏蟲不知冷水耳.”

35) 錢大昕, 『三國志辨疑』, 「自序」. “注史與注經不同. [···] 注史以達事爲主, 事不明, 訓詁雖精無益也.”

36) 賀復徵, 『文章辨體彙選』 卷127, 「表」 3, 〈上三國志注表 宋裴松之〉. “臣前被詔, 使采三國異同, 以注陳壽國志. 壽書鈔書可觀, 事多審正, 誠游覽之苑囿, 近世之嘉史. 然失在於略, 時有所脫漏. 臣奉旨尋詳, 務在周悉, 上接舊聞, 傍撫遺逸…….”

5년(242년)에 저중현(祖中縣)을 공격했다고 한 것에 대해 「위서」 〈소제기(少帝紀)〉와 「오서」 〈손권전(孫權傳)〉을 교차 비교하여 가화(嘉禾) 6년(237년)의 일로 바로잡은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사료 비교 방식은 배송지 주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는데, 이에 주목하여 배송지를 사료비교법의 개창자로 보는 견해까지 있다.<sup>38)</sup>

여기에 배송지 주는 사료 비평을 근간으로 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배송지 주는 대체로 ‘인문(引文)’·‘안어(案語)’·‘석문(釋文)’·‘고증(考證)’·‘평론(評論)’의 순서로 전개되어 있어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대체로 ‘인문’에서는 사료 전문의 인용이, ‘안어’에서는 인문의 유래 또는 사건 관련 인물의 여러 정황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석문’에서는 음의·지명·전고 등에 대한 해석이, ‘고증’에서는 ‘안어’의 형식으로 여러 사료 비교를 통한 고증이, ‘평론’에서는 배송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론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혼고는 물론 원문의 보결과 보충 및 여러 시각·해석·비평이 자연스럽게 망라되게끔 하였다.<sup>39)</sup>

정리하면, 『삼국지』의 배송지 주는 이전의 전통적인 작주 원칙인 혼고와 교감을 벗어나 많은 다양한 자료를 교차 비교하여 원문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사학사에서 하나의 획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송지 주가 고증세 잡다하게 사실을 나열하였다거나 문체가 줄렬하다고 비판받은 것은 그의 보주가 일반적인 작주 원칙을 벗어난 데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배송지 주가 엄격한 사료 비판과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 배송지 주는 현재 전하지 않는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37) 劉治立, 「裴松之《三國志》注的史料比較法」, 『寧夏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8卷 1期 (2007), 100쪽.

38) 楊翼驥, 「裴松之與范曄」, 《光明日報》, 1962년 7월 14일자.

39) 崔磊·雷家宏, 앞의 논문, 12쪽.

### III.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의 복원과 전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지』의 배송지 주는 전통시대 일부 학자들의 부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동아시아 사학사에서 사료비교법의 효시로 손꼽힐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배송지 주가 유효표(劉孝標, 462-521)의 『세설신어주(世說新語注)』·역도원(酈道元, 466?-527)의 『수경주(水經注)』·이선(李善, ?-689)의 『문선주(文選注)』와 함께 중국 고대 4대 '명주(名注)'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sup>40)</sup>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위략』은 배송지의 작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배송지 주에서 어환의 『위략』(143회)이 왕침(王沈)의 『위서(魏書)』(147회)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위략』은 위나라 경조(京兆) 출신으로 위나라 명제(明帝, 226-239) 때 낭중을 지냈던 어환이 태화(太和, 227-232) 연간 이후 진나라 태강(太康, 280-289) 이전에 편찬한 기전체의 사찬 정사류이다.<sup>41)</sup> 『위략』의 편찬 시점에 대해서는 위 명제 무렵<sup>42)</sup>·위 명제 직후<sup>43)</sup>·255년 무렵<sup>44)</sup>·265년 무렵<sup>45)</sup>·280년 대설<sup>46)</sup> 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250-260년대 저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7)</sup> 『위략』이 망일된 것은 대체로 남조 송나라(420-479) 때인 것으로 여겨지는데<sup>48)</sup>, 1923년 장봉일

40) 錢穆, 『中國史學名著』(三聯書店, 2000), 116-117쪽.

41) 全海宗, 『東亞史論集 第二: 東夷傳의 文獻的研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一潮閣, 1990)(重版), 40-41쪽.

42) 劉知幾, 『史通』卷12, 「外篇」, 〈古今正史〉第2, 「右說後漢書」. “先是魏時, 京兆魚豢私撰魏略, 事止明帝.”

43) 公明성, 「『위략』의 편찬년대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1994), 52쪽.

44) 何遠景, 「《魏志·倭人傳》前四段出自《東觀漢記》考」, 『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年 3期(1994), 90쪽; 江畑武, 「再び《魏略》の成立年代について-何遠景氏二五五年說-」, 『阪南論集(人文·自然科學篇)』 26卷 1號(1990. 9), 7쪽.

45) 江畑武, 「翰苑所引の 魏略肅慎記事と魚豢の卒年」, 『阪南論集(人文社會科學篇)』 28卷 4號(1993. 12), 8쪽.

46) 伊藤德男, 「魏略の製作年代に就いて」, 『歷史學研究』 19(1935), 72쪽.

47) 全海宗, 앞의 책(1990), 48쪽; 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1998), 137쪽; 이강래,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입문』 1(신서원, 2006), 400쪽.

48) 張鵬一, 1923, 『魏略輯本』, 「序」. “其書自宋太平御覽, 高似孫史略, 蕭常續後漢書多見徵引, 至元郝經續後漢書兼注入錄而無魏略, 諸志逸文, 疑南宋時其書不傳.”

(張鵬一)이 『삼국지』 배송지 주·『태평어람(太平御覽)』·『북당서초(北堂書鈔)』·『초학기(初學記)』에서 일문을 추려 『위략집본(魏略輯本)』 26권(보유 1권 포함)을 편찬하였다.

그런데 배송지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진수의 『삼국지』 본문과 교차 비교한 뒤 잘못된 것이나 빠진 부분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주하였고, 만약 『삼국지』 본문과 대치되는 사료 또는 없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거나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느 것이 맞는지 분명치 않다(未詳孰是)”든가 아니면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다(未知何者爲誤)”라고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장매(張邈, ?-195)의 죽음과 관련하여 『삼국지』 〈장매전(張邈傳)〉과 『헌제춘추(獻帝春秋)』의 기사가 다른 것에 대한 그의 판단을 들 수 있다.<sup>49)</sup>

배송지의 이와 같은 작주 원칙은 그가 자신의 주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위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특히 『삼국지』와 『위략』의 기사가 서로 다르거나, 다른 정황을 전하고 있는 것의 경우 반드시 여러 사료를 비교하여 그 진위를 밝힌 다음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을 남겨놓았다. 예를 들어 배송지는 『위략』에 전하는 기사에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위략』의 이 말은 본전과 반대로 되어 있다(魏略此語, 與本傳反)<sup>50)</sup>, “『위략』의 이 말은 진정한 상황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可謂未達其心矣)<sup>51)</sup>든지, “(『위략』이 틀리고) 본전이 맞다(論其然否, 謂本傳爲是)<sup>52)</sup> 등의 설명을 남겼다.

배송지의 위와 같은 작주 원칙을 고려해볼 때, 그의 『위략』 인용이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배송지가 인용한 것은 『위략』 가운데서도 여러 전문과 자료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송지 주가 사료

49) 陳壽, 『三國志』卷7, 『魏書』7, 〈張邈傳〉에 대한 裴松之 注. “案本傳, 邈詣述, 未至而死. 而此云僭稱尊號, 未詳孰是.”

50) 陳壽, 『三國志』卷18, 『魏書』18, 〈文聘傳〉에 대한 裴松之 注. “…… 魏略此語, 與本傳反.”

51) 陳壽, 『三國志』卷35, 『蜀書』5, 〈諸葛亮傳〉에 대한 裴松之 注. “松之以爲魏略此言, 謂諸葛亮爲公威計者, 可也. 若謂兼爲己言, 可謂未達其心矣.”

52) 陳壽, 『三國志』卷23, 『魏書』23, 〈常林傳〉에 대한 裴松之 注. “案魏略此語, 與本傳反. 臣松之以爲林之爲人, 不畏權貴者也. 論其然否, 謂本傳爲是.”

비교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료 고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든가, 『삼국지』 배송지 주에 인용되어 있지 않은 『위략』 일문이 『태평어람』·『한원』·『북당서초』·『초학기』 등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지』 배송지 주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의 ‘조선후’ 기사 또한 단순히 이문을 소개한 것이거나 ‘일천리’가 ‘이천리’로 오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표2에서 『사기』·『한서』·『위략』의 고조선 관련 기사 전문을 대조해 보기로 하겠다. 『사기』와 『한서』의 경우, 기사 비교하는 「조선열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일문의 잔존상태로 보아 1923년 민국인 장봉일이 조선조를 집록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가 일정한 서술체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둘째, 그러하기에 『사기』·『한서』 「조선열전」과의 비교를 통해 『위략』 고조선 기사의 대체적인 원형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략』 조선 관계 기사의 신빙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표2-『사기』·『한서』·『위략』의 고조선 관련 기사 대조

『史記』 「朝鮮列傳」	『漢書』 「朝鮮傳」	『魏略』 朝鮮 關係 記事
-	-	A-1.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之(韓條)
-	-	A-2.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韓條)
-	-	A-3.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韓條)
B-1.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B-1. 朝鮮王滿, 燕人	-
B-2.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 朝鮮, 爲置吏, 築障塞.	B-2. 自始燕時, 嘗略屬眞番, 朝鮮, 爲置吏, 築障.	B-2. 後子孫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韓條)
B-3. 秦滅燕, 屬遼東外徼	B-3. 秦滅燕, 屬遼東外徼	B-3-1.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韓條) B-3-2.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韓條)

표2-계속

『史記』 「朝鮮列傳」	『漢書』 「朝鮮傳」	『魏略』 朝鮮 關係 記事
B-4. 漢興, 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 屬燕	B-4. 漢興, 爲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 屬燕	B-4-1-1. 否死, 其子準立(韓條) B-4-1-2. 準, 朝鮮王否之子(滅條) B-4-2-1.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韓條) B-4-2-2. 準立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滅條) B-4-3. 燕, 齊, 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於西方(韓條)
B-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與人, 魁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障	B-5.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與人, 椎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涇水, 居秦故空地上下障	B-5-1.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涇水(韓條) B-5-2-1.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涇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爲朝鮮藩屏(韓條) B-5-2-2. 滿詣準降(滅條) B-5-3-1.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韓條) B-5-3-2.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滅條)
B-6. 稍役屬眞番, 朝鮮蠻夷及故燕, 齊亡命者, 王之, 都王險	B-6. 稍役屬眞番, 朝鮮蠻夷及故燕, 齊亡在者, 王之, 都王險	B-6-1-1. 滿誘亡黨, 衆稍多(韓條) B-6-1-2. 滿誘亡黨, 衆稍多(滅條) B-6-2-1.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韓條) B-6-2-2. 燧還攻準(滅條)
B-7. 會孝惠, 高后時, 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B-7. 會孝惠, 高后, 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毋使盜邊, 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
B-8.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 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B-8.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以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 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
B-9.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B-9.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弗通	-
B-10. 元封二年, 漢使涉何譙諭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界上, 臨涇水, 使御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 卽渡, 馳入塞, 遂歸報天子曰. 上爲其名美, 卽不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	B-10. 元封二年, 漢使涉何譙諭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界, 臨涇水, 使馭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 卽渡水, 馳入塞, 遂歸報天子曰, 殺朝鮮長, 上爲其名美, 弗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	-

표2-계속

『史記』 「朝鮮列傳」	『漢書』 「朝鮮傳」	『魏略』 朝鮮 關係 記事
B-11. 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B-11. 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
B-12.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 右渠發兵距險	B-12.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 左將軍荀彘出遼東, 誅右渠. 右渠發兵距險	-
B-13. 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 敗散, 多還走, 坐法斬. 樓船將軍齊兵七千人先至王險,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卽出城擊樓船, 樓船軍敗散走. 將軍楊僕失其衆, 遁山中十餘日, 稍求收散卒, 復聚. 左將軍擊朝鮮涇水西軍, 未能破自前	B-13. 左將軍卒多率遼東士兵先縱, 敗散, 多還走, 坐法斬. 樓船將軍齊兵七千人先至王險,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卽出擊樓船, 樓船軍敗走. 將軍楊失其衆, 遁山中十餘日, 稍求收散卒, 復聚. 左將軍擊朝鮮涇水西軍, 未能破	-
B-14. 天子爲兩將未有利,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右渠見使者, 頓首謝, 願降, 恐兩將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B-14. 天子爲兩將未有利,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右渠見使者, 頓首謝, 願降, 恐將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
B-15.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軍糧. 人衆萬餘, 持兵, 方渡涇水, 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 謂太子已服降, 宜令人毋持兵. 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之, 遂不渡涇水, 復引歸. 山還報天子, 天子誅山	B-15.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軍糧. 人衆萬餘, 持兵, 方渡涇水, 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 謂太子已服降, 宜令人毋持兵. 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之, 遂不度涇水, 復引歸. 山報, 天子誅山	-
B-16. 左將軍破涇水上軍, 乃前, 至城下, 圍其西北. 樓船亦往會, 居城南. 右渠遂堅守城, 數月未能下	B-16. 左將軍破涇水上軍, 乃前, 至城下, 圍其西北. 樓船亦往會, 居城南. 右渠遂堅守城, 數月未能下	-
B-17. 左將軍, 素侍中, 幸, 將燕代卒, 悍, 乘勝, 軍多驕. 樓船將齊卒, 入海, 固已多敗亡, 其先與右渠戰, 困辱亡卒, 卒皆恐, 將心慙, 其圍右渠, 常持和節	B-17. 左將軍, 素侍中, 幸, 將燕代卒, 悍, 乘勝, 軍多驕. 樓船將齊卒, 入海, 已多敗亡, 其先與右渠戰, 困辱亡卒, 卒皆恐, 將心慙, 其圍右渠, 常持和節	-
B-18. 左將軍急擊之, 朝鮮大臣乃陰間使人私約降樓船, 往來言, 尚未肯決. 左將軍數與樓船期戰, 樓船欲就其約, 不會. 左將軍亦使人求間隙降下朝鮮, 朝鮮不肯, 心附樓船. 以故兩將不相能. 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 今與朝鮮私善而又不降, 疑其有反計, 未敢發	B-18. 左將軍急擊之, 朝鮮大臣乃陰間使人私約降樓船, 往來言, 尚未肯決. 左將軍數與樓船期戰, 樓船欲就其約, 不會. 左將軍亦使人求間隙降下朝鮮, 不肯, 心附樓船. 以故兩將不相得. 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 今與朝鮮和善而又不降, 疑其有反計, 未敢發	-
B-19. 天子曰, 將率不能前, 使衛山諭降右渠, 右渠遣太子, 山使不能專決, 與左將軍計相誤, 卒沮約. 今兩將圍城, 又乖異, 以故久不決. 使濟南太守公孫遂往之, 有便宜得以從事	B-19. 天子曰, 將率不能前, 乃使衛山諭降右渠, 不能顯決, 與左將軍相誤, 卒沮約. 今兩將圍城, 又乖異, 以故久不決. 使故濟南太守公孫遂往正之, 有便宜得以從事	-

표2-계속

『史記』 「朝鮮列傳」	『漢書』 「朝鮮傳」	『魏略』 朝鮮 關係 記事
<p>B-20. 遂至, 左將軍曰, 朝鮮當下久矣, 不下者有狀. 言樓船數期不會, 具以素所意告遂, 曰, 今如此不取, 恐為大害, 非獨樓船, 又且與朝鮮共滅吾軍. 遂亦以為然, 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 卽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 并其軍, 以報天子. 天子誅遂</p>	<p>B-20. 遂至, 左將軍曰, 朝鮮當下久矣, 不下者. 樓船數期不會, 具以素所意告遂, 曰, 今如此不取, 恐為大害, 非獨樓船, 又且與朝鮮共滅吾軍. 遂亦以為然, 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軍計事, 卽令左將軍戲下執縛樓船將軍, 并其軍, 以報. 天子誅遂</p>	<p>-</p>
<p>B-21. 左將軍已并兩軍, 卽急擊朝鮮</p>	<p>B-21. 左將軍已并兩軍, 卽急擊朝鮮</p>	<p>-</p>
<p>B-22. 朝鮮相路人, 相韓陰, 尼谿相參, 將軍王啖相與謀曰, 始欲降樓船, 樓船今執, 獨左將軍并將, 戰益急, 恐不能與, 王又不肯降, 陰, 啖, 路人皆亡降漢, 路人道死</p>	<p>B-22. 朝鮮相路人, 相韓陶, 尼谿相參, 將軍王啖相與謀曰, 始欲降樓船, 樓船今執, 獨左將軍并將, 戰益急, 恐不能與, 王又不肯降, 陶, 啖, 路人皆亡降漢, 路人道死</p>	<p>-</p>
<p>B-23.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p>	<p>B-23.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p>	<p>-</p>
<p>B-24. 王儉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己又反, 復攻吏</p>	<p>B-24. 王儉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己又反, 復攻吏</p>	<p>-</p>
<p>B-25. 左將軍使右渠子長降, 相老人之子最告諭其民, 誅成己, 以故遂定朝鮮, 為四郡</p>	<p>B-25. 左將軍使右渠子長降, 相老人之子最告諭其民, 誅成己, 故遂定朝鮮, 為真番, 臨屯, 樂浪, 玄菟四郡</p>	<p>-</p>
<p>B-26. 封參為灑清侯, 陰為荻苴侯, 啖為平州侯, 長為幾侯. 最以父死頗有功, 為溫陽侯</p>	<p>B-26. 封參為灑清侯, 陶為秋苴侯, 啖為平州侯, 長為幾侯. 最以父死頗有功, 為沮陽侯</p>	<p>-</p>
<p>B-27. 左將軍徵至, 坐爭功相嫉, 乖計, 弃市. 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 當待左將軍,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為庶人</p>	<p>B-27. 左將軍徵至, 坐爭功相嫉, 乖計, 棄市. 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 當待左將軍,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為庶人</p>	<p>-</p>
<p>B-28. 太史公曰, 右渠負固, 國以絕祀, 涉何誣功, 為兵發首. 樓船將狹, 及難離咎. 悔失番禺, 乃反見疑. 荀彘爭勞, 與遂皆誅. 兩軍俱辱, 將率莫侯矣</p>	<p>B-28. 贊曰, 楚·粵之先, 歷世有土. 及周之衰, 楚地方五千里, 而句踐亦以粵伯. 秦滅諸侯, 唯楚尚有滇王. 漢誅西南夷, 獨慎復寵. 及東粵滅國遷衆, 繇王居股等猶為萬戶侯. 三方之開, 皆自好事之臣. 故西南夷發於唐蒙, 司馬相如, 兩粵起嚴助, 朱買臣, 朝鮮由涉何. 遭世富盛, 能成功, 然已勤矣. 追觀太宗壤撫尉佗, 豈古所謂招攜以禮, 懷遠以德者哉</p>	<p>B-28. (議曰……)</p>

표2를 보면,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조선전」은 사마천과 반고의 사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서』 「조선전」이 『사기』 「조선열전」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기』 「조선열전」을 그대로 전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기』·『한서』와는 달리 『삼국지』 배송지 주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은 조선후로부터 위만이 정권을 찬탈하고 위만조선을 세우기까지의 과정만 전하고 있는 데다 이에 대응되는 『사기』·『한서』와는 단순히 자구 일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가 그보다 앞서 편찬된 『사기』와 『한서』를 고조선 관련 유일한 정보로 하거나 전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배송지 주에 인용된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위만이 준왕으로부터 정권을 찬탈한 뒤 자신의 왕조를 세우는 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다. 『사기』·『한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관찬 사서이든 아니면 사찬 사서이든 간에 중국 사서의 고조선에 대한 집중적인 서술 대상은 위만조선 이전이 아니라 위만조선과 위만조선의 멸망과정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기』·『한서』의 고조선 관계 기사가 배송지 주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과는 달리 위만조선의 왕계 전승과 한나라와의 전쟁 관련 기사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래 『위략』에도 『사기』·『한서』의 위만조선과 한나라와의 전쟁 기사 등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기』·『한서』에 자세한 기록이 전하고 있는 데다 어환 또한 『사기』·『한서』를 참고하여 기술한 까닭에 배송지가 별다른 인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삼국지』에 조선전이 별도로 입전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배송지 주 인용의 『위략』에서 내용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가장 앞서 기술되어 있는 구절이 “석기자지후……(昔箕子之後……)”인 것으로 보아, 그 앞에는 ‘기자’와 ‘고조선’에 관한 별도의 조목이 최소 한 구절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전체 사서에서 특정 종족 또는 나라의 서술을 “옛적 기자의 후손 중에……”와 같이 설화적 문체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더 유추해보면, 『삼국지』의 배송지

주 외에 『태평어람』과 『한원』 등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의 서용·고구려·한·왜인 등의 기사로 보아, 『위략』 고조선 기사의 첫머리는 고조선의 상대 위치·연혁·지배층에 대한 서술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53)</sup>

결국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고조선 관련 일정한 서술체계를 갖춘 문단의 일부 기사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고조선 기사 말미에 어환의 사론이 빠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배송지 주·『송서』·『사통통석(史通通釋)』 등에 인용되어 있는 ‘어환설(魚參說)’·‘어환왈(魚參曰)’·‘어환의왈(魚參議曰)’이 주목되는데, 이 가운데 ‘어환설’과 ‘어환왈’은 ‘위략운(魏略云)’ 또는 ‘위략왈(魏略曰)’의 다른 말이고, ‘어환의왈’은 원래 ‘의왈(議曰)’인 것을 어환의 『위략』에 있는 ‘의왈’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54)</sup> 따라서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원래 고조선의 연혁과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본문과 ‘의왈’의 사론이 첨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위략』 고조선 기사의 사료 전거가 어떠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위의 기사 대조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배송지 주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 고조선 문단의 기사가 『사기』·『한서』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이 『사기』·『한서』에 유사한 내용조차 전혀 들어가지 않은 A-1에서 A-3까지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사기』·『한서』에 언급되어 있는 준왕 이전의 고조선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조선후가 기자의 후손’으로 지칭되어 있고, 연(燕)나라와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설화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략』 고조선 기사는 ‘조선후’를 어디에 근거하여 기자의 후손으로 지목하였던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어환은 낭중이라는 낮은 관직을 지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조정의 공식적인 명을 받아 『사기』·『한서』·『삼국지』 등의 관찬 사서를 펴낸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조정의 비부(秘部)에 수장되어 있는 각종 이민족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53) 이러한 점은 『한원』에 인용되어 있는 『위략』의 삼한 관련 기사(“魏略曰, 韓, 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地方四千里.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辰韓古之辰國也. 馬韓在其西, 其人士着種稻, 知作綿布……”)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54) 全海宗, 「『魏略』과 『典略』-그 내용과 年代에 관한 比較檢討-」, 『歷史學報』 99·100 合輯(1983), 224-225쪽.

과정 중에 ‘조선후’ 관련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낮다. 마찬가지로 그가 3세기 전반 위나라 관구검(卞丘儉)의 요동 정벌과 고구려 공략 등의 과정에서 새로 축적하게 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을 가능성 또한 낮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조선후’ 기사는 어환이 『위략』 이전에 편찬된 다른 사서의 고조선 관련 기사를 전재하거나 참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략』 이전에 성서된 자료 가운데 기사를 고조선과 연계 짓고 있는 것은 한나라 문제(기원전 179-165년) 때 복생(伏生)의 구전을 조작(晁錯) 등이 예서로 기록해놓은 『상서대전』<sup>55)</sup>과 사마천(기원전 145?-86?)의 『사기』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sup>56)</sup>가 처음이다. 『사기』 이후 『위략』 이전으로는 반고의 『한서』 「지리지」<sup>57)</sup>와 왕부(王符, 85?-162)의 『잠부론(潛夫論)』<sup>58)</sup> 등이 있고, 『위략』 직후로는 진수(233-297)의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예조(滅條)〉<sup>59)</sup>가 있다.

그런데 『상서』로부터 『위략』·『삼국지』까지의 기자·고조선 관련 기사를 보면 특이한 현상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기원전 2세기 중반 『상서』 단계에는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나자 주나라 무왕이 조선에 봉해주었다고만 되어 있던 것이, 끝이은 기원전 1세기 『사기』 단계에는 기자와 무왕의 만남 및 조선에 봉해진 이후 주나라와의 관계 등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기원후 1세기 말 『한서』 단계에 와서는 기자의 고조선 내에서의 행적과 영향력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위의 『상서』·『사기』·『한서』에서는 기자만이 집중 조명되어 있을 뿐, 고조선 왕계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자·고조선 관련 서술의 변화는 중국의 고조선 지역에 대한 지배의 당위성과 고조선 지역에 토착화된 한인(漢人) 유력층들의 가계

55) 伏生, 『尚書大傳』卷3, 「大戰篇」. “釋箕子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56) 司馬遷, 『史記』卷38, 「宋微子世家」第8.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 於是, 武王乃封箕子於朝鮮, 而不臣也. 其後箕子朝周, 過故殷墟, 感宮室毀壞, 生禾黍, 箕子傷之, 欲哭則不可, 欲泣爲其近婦人, 乃作麥秀之詩以歌詠之…….”

57) 班固, 『漢書』卷28下, 「地理志」第8下, 〈燕〉.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仁賢之化也, 然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故孔子悼道不行, 說浮於海, 欲居九夷, 有以也夫.”

58) 王符, 『潛夫論』卷第8, 「五德志」第34. “武王封微子於宋, 封箕子於朝鮮.”

59) 陳壽,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滅條〉.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 以教之, 無門戶之閉, 而民不爲盜.”

현시 등과 관련이 있다.<sup>60)</sup>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략』 고조선 기사의 A류 등의 기사가 『위략』 이전의 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한서』의 기자·고조선 서술이 『사기』 등보다 구체화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기자·고조선 왕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준왕 이전의 상황도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략』 고조선 기사가 『한서』보다 고조선 관련 기술이 더욱 구체화된 『한서』 이후의 사료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략』의 고조선 기사 가운데 『삼국지』 배송지 주에 인용되어 있는 관계 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료를 참고한 것일까?

우선 『위략』이 고조선 기사를 서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기전체 사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전체 사서에만 일정한 서술체계를 갖춘 고조선 기사가 삽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략』 고조선 기사의 저본이 된 사서는 그 권위가 어환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찬 사서라 하더라도 신뢰도가 극히 낮은 이문을 바탕으로 고조선 기사를 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서 시기가 『한서』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위략』 이후 시기에는 기전체 사서에 더 이상 조선전을 입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어환이 『위략』 고조선 기사를 서술하면서 참고했을 법한 사서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동한의 당대사인 『동관한기』<sup>61)</sup>이다. 『동관한기』는 동한 명제(明帝 58-75)가 반고·진중(陳宗)·윤민(尹敏)·맹이(孟異) 등에게 「세조본기(世祖本紀)」·공신열전(功臣列傳)·재기(載記) 28편 등을 편찬케 한 뒤, 영초(永初) 연간(107-113년)을 거쳐 원가(元嘉) 원년(151년)에 이르러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자 1차 『한기(漢記)』(114년)라 이름하여 완성하였다. 이어 희평(熹平) 연간(172-178년)에 마일제(馬日磾)·채옹(蔡邕),

60) 三上次男,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と土着民社會の狀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1966), 53쪽; 全海宗, 「古代 中國人の 韓國觀 - 正史 朝鮮傳의 檢討에 의한 試論 -」, 『震壇學報』 46·47 合輯(1979), 69쪽; 徐永大, 「금석문 자료소개: 王基 墓誌」, 『한국고대사연구회회보』(1993), 20쪽; 尹龍九, 앞의 논문, 125쪽.

61) 『동관한기』는 동한과 삼국시대까지는 『한기(漢記)』라 하였다가 남북조시대 때 순열(荀悅)의 『한기(漢紀)』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관한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吳樹平, 「《東觀漢記》的書名」, 『秦漢文獻研究』(齊魯書社, 1988), 127-133쪽(尹龍九, 앞의 논문, 145쪽에서 재인용).

133-192) · 양표(楊彪) · 노식(盧植)이 일부를 증보하다가 동탁(董卓)의 난이 있은 후 영초 연간 이후의 인물과 사건 관련 부분이 산일된 채<sup>62)</sup> 3세기 중반까지는 전승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동관한기』의 편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동관한기』가 동한 초기에 편찬되기 시작해 영초 연간에는 유진(劉珍)과 이우(李尤) 등에 의해 사실상 기본적인 편찬이 완료되었다는 점이다.<sup>63)</sup> 특히 영초 연간에는 복무기(伏無忌)와 황경(黃景)이 「제왕전(諸王傳)」 · 「왕자전(王子傳)」 · 「공신전(功臣傳)」 · 「남단우전(南單于傳)」 · 「서강전(西羌傳)」 · 「지리지(地理志)」 · 「은택후표(恩澤侯表)」를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동관한기』가 서한의 정사인 『한서』의 체제와 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동관한기』가 비록 동한 당대사이기는 하지만 고조선 기사가 「전(傳)」에 근접한 체제를 갖고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관한기』에 최소한 고조선 관계 기사가 별도로 서술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동한 명제의 명을 받아 『동관한기』의 열전과 재기 등을 처음 집필한 사람이 반고라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반고는 역사 편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반표(班彪, 3-54)의 장자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역사 편찬에 힘을 기울이다가 국사를 함부로 개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옥살이를 하던 중 무공을 세운 동생 반초(班超, 32-102)의 청원으로 옥에서 풀려난 뒤 동한 명제의 신임을 얻어 난대령사(蘭臺令史)에 제수된 뒤 왕명을 받아 서한의 정사인 『한서』 초고를 편찬한 인물이다.

따라서 반고가 동한 명제 때 서한의 정사인 『한서』와 동한의 당대사인

62) 劉知幾, 『史通』 卷第12, 「外篇」, 「古今正史篇」 第2, 〈右說漢書〉. “在漢中興, 明帝始詔班固與睢陽令陳宗, 長陵令尹敏, 司徒從事孟異作世祖本紀, 并撰功臣及新林, 平林, 公孫述事, 作列傳, 載記二十八篇. 自是以來, 春秋考記亦以煥炳, 而忠臣義士莫之撰勒. 於是, 又詔史官謁者僕射劉珍及諫議大夫李尤雜作記, 表, 名臣, 節士, 儒林, 外戚諸傳, 起自建武, 訖乎永初. 事業垂竟而珍, 尤繼卒. 復命侍中伏無忌與諫議大夫黃景作諸王, 王子, 功臣, 恩澤侯表, 南單于, 西羌傳, 地理志. 至元嘉元年, 復令太中大夫邊韶, 大軍營司馬崔寔, 議郎朱郎, 曹壽雜作孝穆, 崇二皇及順烈皇后傳, 又增外戚傳入安思等後, 儒林傳入崔篆諸人. 寔壽又與議郎延篤雜作百官表, 順帝功臣孫程, 郭愿及鄭衆, 蔡倫等傳. 凡百十有四篇, 號曰漢記. 熹平中, 光祿大夫馬日磾, 議郎蔡邕, 楊彪, 盧植著作東觀, 接續紀傳之可成者, 而邕別作朝會, 車服二志. 後坐事徙朔方, 上書求還, 續成十志. 會董卓作亂, 大駕西遷, 史臣廢棄, 舊文散逸, 在許都, 楊彪頗存注記. 至于名賢君子, 自永初已下缺續.”

63)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유지기 또한 『사통』에서 『동관한기』가 “광무 연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초 연간에까지 이르렀다(起自光武, 訖乎永初)”라고 한 것이다.

『동관한기』의 편찬에 동시에 참여함에 따라 자연히 『동관한기』에도 고조선 관계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고 당시에는 고조선 관계 기사가 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 「조선열전」을 저본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표2에도 나타났듯이 『한서』 「조선전」이 『사기』 「조선열전」의 서술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64)</sup>

그러나 주목할 것은 『동관한기』가 동한 명제 때 기본 골격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뒤 거의 동한 전 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완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반고가 『사기』 「조선열전」을 저본으로 하여 초고를 잡아놓은 고조선 관계 기사 가운데 위만이 정권을 잡기 이전의 구체적인 과정과 준왕 이전의 고조선 관련 기사가 개수·보결·추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동관한기』의 「지리지」이다. 유지기에 따르면, 『동관한기』 「지리지」는 영초 연간 복무기가 처음으로 편찬하였고, 그 뒤 동한 말의 채옹이 ‘속보(續補)’하였다.

유지기에 따르면, 『동관한기』에는 별도로 「동이전」이 입전되어 있지는 않았다. 중국 사서에서 「동이전」이 처음으로 입전된 것은 사승(謝承)의 『후한서』(240년 무렵 찬)부터이다.<sup>65)</sup> 『동관한기』에 「동이열전」이 별도로 입전되어 있지 않은 까닭은 반고가 초고를 작성한 『한서』의 체제를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서』에서는 후대의 동이전에 수록되어 있는 종족과 나라를 「지리지」에 삽입하여 서술해놓았다. 따라서 『동관한기』 또한 「지리지」에 관련 기사를 서술해놓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sup>66)</sup>, 고조선 관계 기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지리지」에 분단하여 삽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하였을 가능성은 『삼국지』 「위서」 〈부여조〉 배송지 주 인용의 『위략』에서 “구지에서 또한 말하기를, ‘옛적 북방에 고리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였다.”<sup>67)</sup>라고 한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68)</sup> 『삼국지』의

64) 鄭起燦, 「『史記』와 『兩漢書』의 對外觀에 대하여 -〈東夷〉와 〈朝鮮傳〉의 검토-」, 『忠南史學』 2(1987), 96쪽; 池田英雄, 「『史記』와 『漢書』의 比較」, 『史記學』 50年 一・中 〈『史記』研究の動向: 1945-95年-〉(明德出版社, 1995), 182-183쪽.

65) 박대재, 「謝承 『後漢書』 東夷列傳에 대한 예비적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5(2009), 41쪽.

66) 何遠景, 앞의 논문, 91쪽.

67) 陳壽,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夫餘條’의 “其印文言[...], 自謂亡人, 抑有以也”에 대한 裴松之의 注. “魏略曰, 舊志又言, 昔北方有高麗之國者[...].”

배송지 주에서 『한서』는 일률적으로 ‘범서(范書)’라고 지칭한 데다 정작 『한서』 「지리지」에는 『위략』에서 인용한 ‘구지’의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환이 『위략』에서 말한 ‘구지’는 「지리지」가 포함되어 있는 정사류의 기전체 사서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한서』 외에 어환 직전의 권위 있는 정사류 기전체 사서로는 동한사인 『동관한기』 「지리지」가 유일하다.<sup>69)</sup>

또한 동한 시기는 『사기』와 『한서』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고조선 관련 기사가 조금씩 확충되는 시기였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왕부의 『잠부론』<sup>70)</sup>이다. 그에 따르면, 연나라 군사가 축조한 한성(韓城) 서쪽의 집단 또한 성을 한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위만의 공격을 당해 ‘해중(海中)’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다. 『잠부론』의 ‘한성·한’ 또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sup>71)</sup>, 위만이 준왕 조선으로부터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 관해 『사기』 「조선열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사가 늦어도 동한 후기에는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또한 『동관한기』에 고조선 관계 기사가 실려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략』의 고조선 기사가 『동관한기』의 「지리지」에 삽입되어 있는 고조선 관계 기사를 참고하여 저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론하면, 동한 전기 『동관한기』가 초찬되었을 때에는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조선전」의 서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속보(續補)’되는 과정 중에 요동군과 낙랑군을 통해 고조선 관련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었고, 정보의 축적과 함께 고조선 지배의 당위성과 토착화된 한인(漢人)들의 가계 현시 욕구가 결합하여 기자·고조선 관련 기사와 준왕 이전 고조선사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동관한기』의 편찬이 동한 명제 때 처음 시작되었고, 명제의 명을 받아 최초의 초고를 편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반고인데, 반고의 『한서』에 『위략』 고조선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68) 何遠景, 앞의 논문, 90쪽.

69) 『동관한기』가 동한 말 동탁의 난 때 망실되었을 것이므로 어환이 『위략』을 편찬할 때 이를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江畑武, 「《魏略》所引の〈舊志〉について」, 『文化史學』 53(1997), 16-18쪽.

70) 王符, 『潛夫論』 卷9, 「志氏姓」 第35. “昔周宣王亦有韓侯, 其國也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71) 田鎮國, 「韓의 起源과 形成」, 韓國學中央研究院 碩士學位論文(2010), 31-51쪽.

때, 『위략』 고조선 기사의 전거가 『동관한기』가 될 수 없다거나 또는 후대에 보완된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관한기』는 192년에 사망한 채옹에 의해 최종적으로 보완되었다. 따라서 반고 이후 채옹 사망까지의 기간 동안 『동관한기』의 「지리지」에 고조선 기사가 보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동관한기』는 동탁의 난이 있은 후 일부 기록이 산일되기는 하였지만 산일된 부분은 영초 연간 이후의 인물들 가운데 추가된 공신전 등이었다. 그런데 어환이 『위략』을 편찬한 때는 255년 무렵이다. 두 사서의 최종적인 편찬 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6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72)</sup>, 어환이 『위략』의 고조선 기사를 편찬하면서 가장 먼저 참고한 자료가 『동관한기』였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환이 고조선 관계 기사를 서술하면서 어느 정도 문장을 개수하고 보궐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주로 참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간 내외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위략』의 ‘조선후’와 ‘취지이천여리’ 조목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거나 또는 정사류에는 들어갈 수 없는 막연한 정보나 이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실제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취지이천여리’의 경우에도 이것이 연장(燕將) 진개(秦開)가 동호(東胡)와 고조선(古朝鮮)을 공격하여 취득한 영토의 합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sup>73)</sup> 그 이유는 이 서술이 고조선을 특칭한 기사의 맥락 속에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천여리’가 ‘일천여리’의 오기일 가능성도 없는데, 그 이유는 두 자체가 오기하거나 혼동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차후의 문제라 하겠다.

72) 何遠景, 앞의 논문, 94쪽.

73) 이렇게 볼 때 『위략』 고조선 기사의 실제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지역의 물질문화의 동향 등을 고려한 별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IV. 맺음말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사기』·『한서』 「조선전」에 이어 고조선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위략』의 기사가 『사기』·『한서』 「조선전」에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기사가 아닌 위만이 정권을 잡기까지의 과정과 준왕 이전의 기사가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위략』은 남조 양나라 유희파 당나라 유지기가 『삼국지』 배송지 주와 함께 자료를 늘어놓아 혼란을 가중시켰고, 문체가 번잡하다는 혹평을 한 후 오랫동안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략』은 『사기』·『한서』를 통해서는 기능할 수 없는 고조선사의 단락을 복원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으며, 『삼국지』 배송지 주는 당시에는 원문의 수배를 넘기도 하는 많은 사료의 인용이 번잡하고 간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다양한 사료를 교차 비교하는 고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사실의 경우에는 엄정하게 불분명하다거나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등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높은 사료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감과 훈고라는 전통적인 보주 방식과 간결·엄정한 전통적인 문체라는 굴레를 벗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두 사서 모두 훌륭한 사서였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략』 고조선 관계 기사는 ‘취지이천여리’ 조목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어환은 낭중이라는 미관말직을 지냈던 인물로 당시 위나라의 동방 경략을 통해 군중(軍中)과 조정 비부에 수집되어 있던 최신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다. 게다가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단문이 아니라 일정한 서술체계를 갖춘 것으로 복원된다. 따라서 그가 별도로 고조선 관계 기사와 정보를 수집하여 고조선 기사를 서술하였다기보다는 그와 가까운 시대의 신뢰할 만한 사서를 참고하여 관련 기사를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략』 고조선 기사는 『사기』·『한서』 「조선전」에는 없는 기사들이 다수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략』 고조선 기사는 이외는 다른 사서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

는 것이 동한 명제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 동한 말 채옹에 의해 최종적으로 속보된 『동관한기』이다. 그런데 『동관한기』에는 동이전이 입전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배송지 주 인용 『위략』에서 『한서』 「지리지」에는 보이지 않는 부여 관련 “구지”가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관한기』 「지리지」의 고조선 관계 기사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杜佑, 『通典』(『文淵』 第603册, 「史部」 361, 〈政書類〉). 商務, 1984.
- 馬端臨, 『文獻通考』(『文淵』 第610册, 「史部」 368, 〈政書類〉). 商務, 1984.
- 房玄齡, 『晉書』(『文淵』 第255册, 「史部」 13, 〈正史類〉). 商務, 1984.
- 班固, 『漢書』(『文淵』 第249册, 「史部」 7, 〈正史類〉). 商務, 1984.
- 范曄, 『後漢書』(『文淵』 第252册, 「史部」 10, 〈正史類〉). 商務, 1984.
- 伏生, 『尚書大傳』(『文淵』 第68册, 「經部」 62, 〈書類〉). 商務, 1983.
- 司馬遷, 『史記』(『文淵』 第243册, 「史部」 1, 〈正史類〉). 商務, 1984.
- 永瑛 等, 『四庫全書總目提要』(王雲五 主編, 國學基本叢書 5-15). 商務, 1968.
- 王符, 『潜夫論』(『文淵』 第696册, 「子部」 2, 〈儒家類〉). 商務, 1985.
- 劉知幾, 『史通』(『文淵』 第685册, 「史部」 443, 〈史評類〉). 商務, 1984.
- 劉知幾 著·浦起龍 注, 『史通通釋』(『文淵』 第685册, 「史部」 443, 〈史評類〉). 商務, 1984.
- 李延壽, 『南史』(『文淵』 第265册, 「史部」 23, 〈正史類〉). 商務, 1984.
- 張鵬一, 『關隴叢書: 魏略輯本』. 陝西(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340 2 1 複), 1923.
- 錢大昕, 『三國志辨疑』(『續修四庫全書』 第292册, 史部, 正史類). 上海, 1995.
- 趙翼, 『廿二史札記』(清嘉慶五年刻本). 中國基本古籍庫.
- 陳壽, 『三國志』(『文淵』 第254册, 「史部」 12, 〈正史類〉). 商務, 1984.
- 賀復徵, 『文章辨體彙選』(『文淵』 第1402册, 「子部」 23, 〈總集類〉). 商務, 1986.
- \* 약어 표기: 文淵 = (影印)文淵閣四庫全書, 商務 = 臺灣商務印書館, 陝西 = 陝西文獻徵輯處,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 공명성, 「《위략》의 편찬년대에 대하여」. 『역사과학』 1호, 1994.
- 김정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10.
- 盧泰敦,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서울大 國史學科, 1990.
- 리상호, 「고조선 중심을 평양으로 보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하)」. 『역사과학』 3, 1963.
-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 박대재,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3, 2006.
- , 「謝承 『後漢書』 東夷列傳에 대한 예비적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 徐永大, 「금석문 자료소개: 王基 墓誌」. 『한국고대사연구회회보』, 1993.
- 徐榮洙, 「古朝鮮의 對外關係와 疆域의 變動」. 『東洋學』 29, 1999.
- 尹乃鉉,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6.
- 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1998.

- 이강래,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입문』 1, 신서원, 2006.
- 李丙燾,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3(重版).
- 李鍾旭,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1993.
- 田鎮國, 「韓의 起源과 形成」. 韓國學中央研究院 碩士學位論文, 2010.
- 全海宗, 「古代 中國人의 韓國觀 -正史 朝鮮傳의 檢討에 의한 試論-」. 『震壇學報』 46·47 合輯, 1979.
- \_\_\_\_\_, 「《魏略》과 《典略》-그 內容과 年代에 관한 比較檢討-」. 『歷史學報』 99·100 合輯, 1983.
- \_\_\_\_\_, 『東亞史論集 第二: 東夷傳의 文獻的研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1990(重版).
- 鄭起燾, 「《史記》와 《兩漢書》의 對外觀에 대하여 -〈東夷〉와 〈朝鮮傳〉의 검토-」, 『忠南史學』 2, 1987.
- 千寬宇, 「古朝鮮의 몇 가지 問題」,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江畑武, 「再び《魏略》の成立年代について -何遠景氏二五五年說-」. 『阪南論集(人文·自然科學篇)』 26卷 1號, 1990. 9.
- \_\_\_\_\_, 「翰苑所引の魏略肅愼記事と魚豢の卒年」. 『阪南論集(人文社會科學篇)』 28卷 4號, 1993. 12.
- \_\_\_\_\_, 「《魏略》所引の〈舊志〉について」. 『文化史學』 53, 1997.
- 宮岸雄介, 「裴松之史學觀」.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42, 1996.
- 三上次男,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と土着民社會の狀態」.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66.
- 伊藤徳男, 「魏略の製作年代に就いて」. 『歷史學研究』 19, 1935.
- 池田英雄, 「史記と漢書の比較」. 『史記學50年 -日·中〈史記〉研究の動向: 1945-95年-』, 明德出版社, 1995.
- 高敏, 「《三國志》裴松之注引書考」.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5卷 3期, 2007. 6.
- 裴媛媛, 「陳壽《三國志》與裴松之注的文史分類」. 『綏化學院學報』 30卷 2期, 2010. 4.
- 傅惠生, 「論裴松之《三國志注》與《三國演義》的關係」.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年 3期.
- 徐宗文, 「論《三國演義》與《三國志》裴注之關係」.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3年 3期.
- 沈伯俊, 「《三國志》與《三國演義》關係三論」. 『福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年 3期.
- 楊翼驥, 「裴松之與范曄」. 《光明日報》, 1962. 7. 14.
- 吳金華, 『三國志叢考』. 上海古籍出版社, 2000.

- 伍野春,『裴松之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8.
- \_\_\_\_\_,「裴松之《三國志注》引書辨析」,『東方論壇』2005年 2期.
- 阮榮,「裴松之對三國時期歷史地理的貢獻」,『運城高等專科學校學報』20卷 2期, 2002. 4.
- 王炳慶,「《三國志》裴松之地理注釋雜考」,『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21卷 5期, 2003. 9.
- 虞萬里,「《三國志》裴注引書新考」,『溫州師範學院學報』1994年 4期.
- 劉治立,「裴松之《三國志》注的史料比較法」,『寧夏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28卷 1期, 2007.
- 李健才,「公元前3-公元前2世紀古朝鮮西部邊界的探討」,『社會科學戰線』1998年 5期.
- 李德山·樊凡,『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張博泉,『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 張碧波,「古朝鮮研究中的誤區—東北史評之一」,『黑龍江民族叢刊』1999年 4期.
- 張智強·趙天一,「試論《三國志》裴松之注“鑿空語怪”的文學意義」,『西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7卷 1期, 2009. 2.
- 錢穆,『中國史學名著』. 三聯書店, 2000.
- 程妮娜 主編,『東北史』. 吉林大學出版社, 2001.
- 趙華,「略論別傳與史傳之異同」,『黑河學刊』2003年 6期.
- 陳慶,「注釋家的“別傳”觀—以裴松之、劉孝標為中心—」,『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0年 6期.
- 崔磊·雷家宏,「《三國志》裴松之注的史學價值」,『襄樊學院學報』32卷 3期, 2011. 3.
- 何遠景,「《魏志·倭人傳》前四段出自《東觀漢記》考」,『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年 3期.

## 국 문 요약

전근대 시기 『위략(魏略)』은 『삼국지(三國志)』 배송지(裴松之) 주와 함께 잡다하고 번잡한 사서로 혹평되었다. 이러한 혹평은 이들 사료의 사료적 가치마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위략』을 인용하고 있는 『삼국지』 배송지 주는 다양한 사료를 교차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철저한 고증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는 많은 사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다시금 재평가되고 있다. 『위략』 또한 『사기(史記)』·『한서(漢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서술 범위를 벗어난 시기의 고조선 관계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위략』의 고조선 관계 기사는 어환(魚豢)의 신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사서를 참고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동한(東漢) 명제(明帝)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동한 말 채옹(蔡邕)이 최종 속보한 『동관한기(東觀漢記)』이다. 그런데 『동관한기』에는 「동이전」이 별도로 입전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배송지 주의 부여 관련 『위략』 인용문에서 ‘구지(舊志)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관한기』 「지리지」에 삽입되어 있는 고조선 관계 기사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위략』의 “취지이천여리(取地二千餘里)” 기사 또한 역사적 해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료적 출처가 분명한 기사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투고일 2012. 7. 3.

수정일 2012. 8. 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삼국지(Sanguozhi), 배송지 주(Peisongzhi commentary), 위략(Weilue), 고조선 관련 기사(Old Joseon related passages), 전거(textual source)

